

<붙임> KBCSD(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뉴스레터 창간호 원고

21세기 국가의 발전전략은 경제성장 중심으로부터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경제시스템, 사회구조, 시민의식 등 기업경영환경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패러다임으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산업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환경오염 부하가 큰 사업으로부터 자원과 에너지소비 및 환경오염이 적은 생태효율성(eco-efficiency)이 높은 산업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산업계에서는 기업의 환경경영과 환경친화적 생산·소비확산, 자원재활용 촉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정부도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육성, 환경-경제 통합지표개발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산업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공급보다는 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자원순환형 사회경제체제를 만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앞으로 국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 집행해나가기 위해서는 지자체, 시민단체, 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정부정책의 기획에서부터 시민단체, 기업 등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는 일은 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새로 출범한 정부는 민·관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국가의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산시키기 위해 현행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기업, 시민단체 등 국가전반의 역량을 모아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KBCSD에서 우리 산업계를 선도하여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고, 지속가능발전이념을 산업계에 널리 확산시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KBCSD를 중심으로 산업계에서 지속가능경영마인드의 확산, 지속가능경영 우수사례발굴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지속가능한 생산·소비패턴, 자원재활용촉진, 에너지 및 물 수요관리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